

“충남지역 구비문학의 전승양상과 활용방안” 워크숍

- 황인덕교수 등 3명의 전문가 주제 발표 -

충남지역 구비문학에 관한 워크숍이 25일(금) 오후2시 한남대학교 공과대학 세미나실에서 민속학자, 향토연구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역사문화연구소(소장 이해준)와 한남대학교 한국어·학연구소(소장 김균태)에서 공동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충남지역 구비문학의 전승양상과 활용방안 등에 대한 학자간의 논의가 전개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황인덕교수(충남대)가 구비문학 중 충남지역의 지명전설에 대해, 최운식교수(교원대)가 충남지역 인물전설을, 정희정강사(한남대)는 충남지역의 민요에 대한 전승양상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게된다.

또 이창식교수(세명대), 황의호교감(대전여고)등 5명의 토론자가 주제발표에 대한 종합토론에 나선다.

한편 이번 워크숍 개최 배경에 대해 이해준 소장(충남역사문화연구소)은 "충남지역 구비전승문화는 순수 학문연구자료로서의 가치와 함께 지역의 전통계승과 문화관광상품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토론의 장에서 제기될 지명·인물전설 및 민요의 활용방안을 지역특화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 공주대와 연구협력 협약식 체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오제직)과 공주대(총장 최석원)은 4월 21일 「연구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양 연구원간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연구활동에 노력키로 했다.

본 원 춘계수련대회 개최

충발원은 지난 4월3일부터 1박 2일간 전직원 참가한 가운데 춘계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연구원의 사기양양과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마련한 이날 수련대회는 연구원 자아발전과 연구원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후 안면도 자연휴양림-삼봉해수욕장(사구)-예산수덕사에 대한 견학이 있었다.

